

오순절 후 스물세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3RD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11월 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17 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새 42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5 번 요한복음(jhn) 3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히브리어 (Hebrews) 13:17-25	양용일 집사
설 교 Sermon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Pray for Us)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11 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새 31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기도 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하면서도,
주님의 몸 된 지체를 사랑하며 보듬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과 거짓과 위선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닮은 참된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아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를 더욱 원하노라” (한글개역 히13:18-19)

“Pray for us. We are sure that we have a clear conscience and desire to live honorably in every way. I particularly urge you to pray so that I may be restored to you soon.” (NIV Hebrews 13:18-1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8 (주일)	11/9 (월)	11/10 (화)	11/11 (수)	11/12 (목)	11/13 (금)	11/14 (토)
	왕하21	왕하22	왕하23	왕하24	왕하25	대상1,2	대상3,4
본문	히3	히4	히5	히6	히7	히8	히9
	호14	울1	울2	울3	암1	암2	암3
	시139	시140-141	시142,143	시144	시1145	시146,147	시148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1/11 오후7:30)	“과거의 죄에 대하여” (민 31:1-20)
토요 새벽기도회 (11/14 오전6:30)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시 141:7)

지난 주일(11/1) 말씀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히 13:9-16)

누구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달라”(신28:13)는 축복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즉 우리는 그 등목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히13:13)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디로, (지금) 우리를, 고난의 길로 부르시는 초청처럼 들립니다. 즉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중심(Centrality)을 향하려 하는데, 웬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굳이) 세상의 변방(Marginality)으로 초청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고난의 길로 부르시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첫째,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도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며 (히13:11-13), 2)둘째, 이처럼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속적인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히13:15), 3)셋째,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또한) 선함과 나눔을 통한 ‘삶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13:16). 이를故이정용 교수님은 ‘마지널리티 (Marginality)’라는 책에서, 비록 중심부에서 밀려난 주변인으로 살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함께할 수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세상의 변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가 되며, 그 사람은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The Margin of Marginality 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